

GIST-문화체육관광부 협력각서(MOC) 체결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및 인재 양성 협력

- GIST AI정책전략대학원 –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10.17.(목) 코시스센터에서
- AI 기반 외신(外信)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성공적 구축과 AI 혁신 정책.전략 분야 우수 인재 양성 및 관련 산업 발전 위해 상호 협력기로



▲ (왼쪽 세 번째부터) GIST AI정책전략대학원 조성범 특임교수,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GIST 김준하 AI정책전략대학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채수희 해외홍보정책관, 문화체육관광부 최강 해외뉴스분석팀장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AI정책전략대학원(원장 김준하)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실장 최보근)이 외신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과 운영, 인공지능 혁신 정책.전략 분야 우수 인재 양성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은 10월 17일(목) 김준하 GIST AI정책전략대학원장,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채수희 해외홍보정책관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에서 열렸다.

협약에는 ▲AI 기반 외신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성공적인 구축과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 협력 ▲플랫폼이 효과적으로 정부 업무와 AI 정책전략대학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호 지원 및 협력 ▲지속적인 성능 고도화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AI 기술 교육 협력 ▲플랫폼의 향후 활용 범위 확대 및 타 플랫폼과의 원활한 연계와 교류를 위한 협력 ▲기타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GIST AI정책전략대학원 김준하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외신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을 통해 GIST의 컴퓨팅 파워를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AI분야 교육 및 연구기술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열기가 더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느껴진다”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외신 데이터 분석 플랫폼 구축을 위한 GIST와의 협력은 국가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최초로 석박사급 AI정책전략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9월 개원한 GIST AI정책전략대학원은 국내외 글로벌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급 교수진을 구성하여 서울·세종·광주 등 3개 캠퍼스에서 AI 기술과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하는 정책 및 전략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